

청소년과 성인간의 세대차이와 유사성*

김명언¹ · 김의철² · 박영신³

¹ 서울대 심리학과 · ² 중앙대 심리학과 · ³ 인하대 교육학과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청소년과 성인세대의 차이와 유사성을 규명하는데 있다. 분석대상은 2,548명(남 1,184명, 여 1,364명)이었으며, 청소년 982명(10대 738명, 20대 244명), 성인 1,566명(30대 187명, 40대 1,135명, 50대 244명)이었다. 분석결과 청소년과 성인집단은 세대차 인식과 심리 행동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청소년은 일상생활 문제에서, 성인은 학업문제에서 세대차를 더욱 지각하였다. 전반적으로 청소년이 성인보다 세대갈등을 더욱 크게 지각하였다. 심리 특성에서도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청소년은 진보지향적, 성인은 보수지향적인 가치를 추구하였다. 청소년은 인기직업을 부러워하였으며, 성인은 안정되고 인정받는 직업을 선호하였다. 성인은 생활목표로서 사회봉사를, 청소년은 자아실현이나 부귀영화 및 가정의 화목을 중시하였다. 성인이 청소년을 평가하는 것보다 청소년이 성인을 더욱 효능적이라고 평가하며, 실제 성인이 청소년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세대집단별 행동특성의 차이도 발견되었다. 청소년은 세대갈등을 회피하고, 성인은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다. 청소년은 역할행동에 있어 보다 진보지향적이고, 성인은 전통지향적이었다. TV시청이나 음악 선호도에서도 차이가 있어 청소년 일수록 랩이나 힙합을, 성인은 트로트나 민요를 선호한다. 청소년이 신세대의 개성적 멋대기를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컴퓨터도 보다 많이 사용하고 통신기기도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반면에 청소년과 성인세대는 여러 가지 유사성도 발견되었다. 두 세대 모두 세대갈등에 대해 자기조절적인 대처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생활목표의식으로서 가정화목에 대한 목표가 가장 높았으며, 가치관이나 역할행동에 있어 보수적이기보다는 진보지향적이었다.

해방이후 한국 사회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고 속한 사회변화의 과정에서, 사람들은 가치관의 변
속 성장을 해왔다. 약 50여년 동안 농업사회 공업 화와 적용의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다. 차재호(1987)
사회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화사회로 발전하는 급 는 해방 후 한국인의 가치관 변동은 사회구조의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 1998년도 인문사회과학 중점영역연구 과제(과제명: 세대갈등과 사회질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가치관 변화에 따른 적응문제를 개인 내에 상반되는 가치관 통합과 관련된 개인수준의 문제와, 집단내 개인적 가치관 대립 및 집단적 가치관의 대립에서 생기는 집단수준의 문제로 요약한 바 있다. 여기에서 집단수준의 문제는 흔히 세대차이 또는 세대갈등으로 지칭되는 세대간의 문제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Elder(1981, 1994)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람들의 삶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제공하는 독특한 삶의 경험들에 의해 인생이 형성됨과 아울러, 삶을 매우 다양하게 만드는 주요한 사회 문화적 변화들은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과정에 강한 영향을 미침을 통해 사회의 특성을 변화시킨다고 주장하였다. Bandura(1997)도 Elder(1981, 1994)의 이같은 입장에 동의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의 다양한 특성요소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자기효능감이 발달적 변화를 해 나간다고 주장하였다.

1945년 이후 현재까지 많은 중요한 사건들 중에서 사회변동을 대표하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의 변동과 세대집단별 경험의 차이를 정리한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10대 20대 청소년들은 서울에서 올림픽이 개최되고 GNP가 \$10,000시대에 돌입하는 등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정치적으로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의 상황에서 아동기를 보냈다. 이들은 경제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급속한 정보화시대로의 변화 속에서 컴퓨터나 인터넷이 생활화된 세대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그들의 부모에 해당하는 40대 50대 성인들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의 경제적인 궁핍을 경험하고, 정치적으로도 4.19혁명, 5.16 군사쿠데타, 12.12 군사쿠데타 등 정치적으로 격변하는 시기를 경험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성인세대도 현재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30대 부모와 대학생을 자녀로 둔 50대 부모 간에는 그들이 성장한 사회적인 환경에 많은

차이가 있다. 50대 성인들은 1960년대의 농경시대에 청소년기를 보낸 반면, 40대는 1970년대 공업화시대에, 30대는 1980년대 산업화시대에 청소년기를 보냈다는 점에서 그들이 거친 사회환경은 매우 다르다.

질적으로 다른 성장배경이 세대차이를 형성하는 주요원인으로 작용함은 Mannheim(1952)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즉 청소년기 경험은 그 이후의 경험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토대로 작용하며, 이러한 누적된 경험들(stratification of experience)이 의식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어, 세대간의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고 보고있다. 박재홍(1999)은 40세 이상 기성세대의 생애사를 질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응답자 다수가 반복적으로 중시하는 생애 주제들은 경제적 궁핍, 도시이주와 직업활동, 사회갈등(성차별, 민주화운동, 세대갈등) 등 3가지임을 제안하면서, 기성세대의 젊은 세대에 대한 세대차이 인식이 기성세대 개개인의 생애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박재홍(1995)은 1970년대에 출생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이를 지칭하는 고유명사로서 신세대를 정의하며, 이들의 독특한 집단적 사회경험을 신세대 특성과 관련하여 설명한다. 즉 경제(경제적 풍요), 문화(범지구적 문화공동체), 정치(동구권의 붕괴, 국내정치적 안정), 교육현실(통제와 자율)과 관련된 사회구조적 배경이, 대중 소비문화의 발달과 관심/욕구의 다원화라는 문화적 매개변인을 거쳐, 소비지향적이며 개인지향적이고 탈권위지향적인 신세대의 특성이 형성되었다고 설명한다.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동 과정은 한국인들의 가치관에 급변을 가져왔다. 1970년대와 1990년대 한국인의 가치관을 비교한 나은영과 차재호(1999)의 연구결과가 보여주듯이, 남녀 평등의식, 풍요로운 생활, 개인주의 경향이 크게 증가되었다. Inglehart(1997)도 한국을 물질주의에서 탈물질주의로 가장 급속하게 변화하는 나라로 규정하며, 사회가치규

법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서양문화권의 미국이나 유럽은 물론 동양문화권의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가장 세대차이가 큰 나라임을 지적하고 있다(나영·민경환, 1998 재인용).

법세계적으로 급속한 사회변동이 행해지면서 세대갈등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에 대한 명확하고 공유된 정의는 아직도 미완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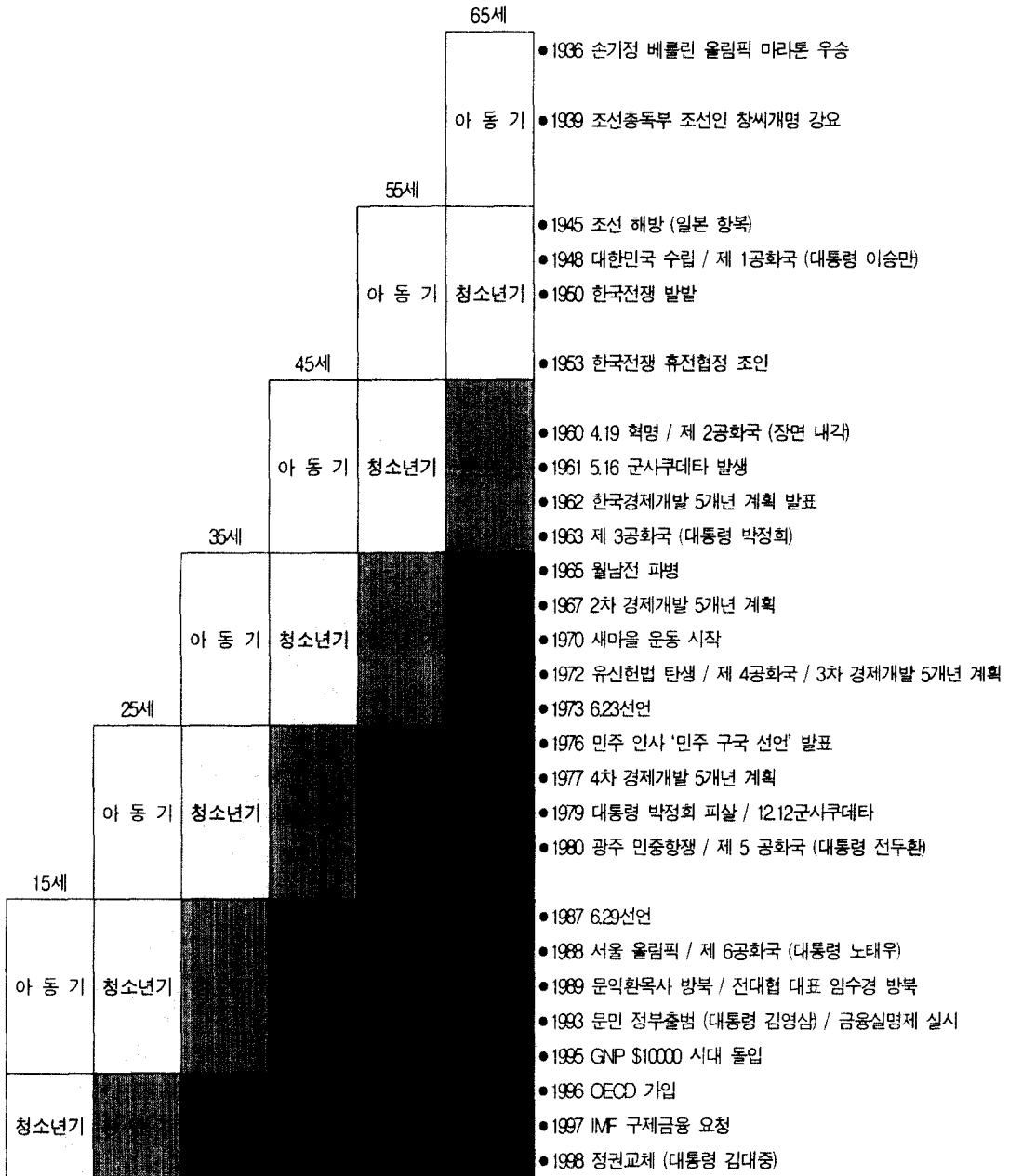


그림 1. 현대 한국 사회의 변동과 세대 집단별 경험 차이

의상 일상생활에서는 흔히 10대, 20대와 같이 10년을 주기로 세대를 구분하는 경향이 대부분이나 문제점이 적지 않다. 예컨대 19세와 20세를 다른 세대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준거가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개념이 일차적으로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범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임희섭(1986)은 지적한다. 왜냐하면 동일한 연령집단에 속하는 개인들은 다수의 사회적 경험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생애주기에 있어서도 비슷한 주기에 위치하기 때문에 하나의 세대로서 간주될 공통특성을 어느 정도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학자들은 세대의 개념을 생물학적인 연령집단 보다는 사회적 기능을 중심으로 범주화하려고 한다. 박재홍(1992)은 세대 개념을 동일한 문화권에서 비슷한 시기에 출생함으로써 공유하게 된 역사적 문화적 경험에 따라 유사한 사고방식과 행위양식을 갖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취하는 학자들은 세대를 현재의 사회질서를 형성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기성세대와 기존질서에 대해 새로운 창의력과 적응력을 가지고 변화를 시도하는 청소년세대로 양분한다(임희섭, 1986).

본 연구에서도 유사한 삶의 경험을 통한 공동의 의식과 행동양식 및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집단을 동일 세대라고 정의하고, 청소년세대와 그들의 부모에 해당하는 성인세대로 세대를 구분하였다. 아울러 세대에 대한 일상적 표상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는 10년 연령 단위를 적용하여, 10대에서부터 50대까지 세대를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세대 및 성인세대 내에서의 차이에 대해서도 살펴 보았다.

본 연구의 핵심주제인 한국 청소년과 성인집단간의 차이와 유사성에 관한 체계적인 실증연구는 극소수이지만 몇몇 기존연구결과들은 이들 세대에 있어서의 차이와 유사성의 공존을 시사해 준다. 토착심리학적 접근을 통한 스트레스와 성취의식을

살펴본 김의철과 박영신(1997)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IMF기간 이전에 한국인이 가장 심하게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건으로,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경우에는 학업관련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반면, 성인은 가정생활관련 스트레스가 가장 많았다. 학생들은 학업스트레스 다음으로 가정생활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가정생활스트레스 유목 중에서 부모와의 갈등 항목의 반응율이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이 학생들이 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사실은, 학생들이 부모세대와 갈등을 경험하는 정도가 높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조절적 대처를 가장 많이 하는 점에서 학생과 성인은 동일하나, 학생이 성인보다 회피양식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MF기간 동안에 경험한 한국인의 주요 스트레스 사건을 분석한 김의철과 박영신(199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학생과 성인 모두 재정적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과반수가 넘는 점에서 동일한 경향을 보였으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략에 있어서는 학생은 회피한다는 반응이 가장 많은 반면, 성인은 자기조절적 대처를 가장 많이 하고 회피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인의 성공의식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김의철과 박영신, 1998), 청소년들은 학업에서의 성취를, 성인들은 직업이나 가정생활에서의 성취를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경험으로 인식하였다. 가장 고통스러운 실패경험(박영신과 김의철, 1999)으로 청소년과 성인 모두 학업에서의 실패를 지적한 점에서는 공통적이거나, 그 다음으로 청소년은 친구나 이성과의 인간관계 실패를 지적한 반면, 성인들은 가족이나 가정문제 자녀교육 등 가정생활에서의 실패를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미래에 가장 성취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도 청소년과 성인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청소년은 원하는 직업을 갖기를, 성인은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

기를 가장 원했다(박영신과 김의철, 1999).

Bandura(1997)는 성취와 건강 등과 같은 인간의 삶의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도, 자기효능감은 생활만족도(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민병기, 1999)나 학업성취(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권혁호, 이상미, 양계민, 예정)를 결정하는 직접효과가 있는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소년과 성인세대간에 자기효능감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나아가서 각 세대는 다른 세대의 효능감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영신(1997)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고등학생은 자기조절효능감이 가장 높았으며, 이에 비해 자기주장효능감은 낮았다. 또한 어머니들은 자녀의 행동이나 학업성취 및 여가 활동을 관리하는 효능감이 가장 높았으나, 이에 비해 스트레스대처 효능감이나 어려움을 극복하는 효능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교사집단은 학생들의 생활이나 학습을 지도하는 효능감이 가장 높았으며,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한다든가 교육적 의사결정을 하는 효능감은 가장 낮았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결과는 청소년과 성인세대의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청소년과 성인세대는 생활에서의 목표의식이나, 가치관 및 부러워하는 대상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임옥(2000)에 의하면 중학생이 부모보다 개인의 즐거움이나 행복을 더욱 추구하고, 부모는 중학생보다 사회봉사나 전통을 더욱 중요시하는 생활목표를 나타내었다. 또한 중학생은 보다 진보지향적인 반면, 부모들은 전통지향적인 가치관을 보다 많이 추구하고 있다. 중학생들은 인기있고 고수입을 보장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는 반면, 부모들은 전문성을 갖고 사회적 인정 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는 차이가 있었다.

가족공동체에 있어서 가족구성원들이 갖는 공정

성 지각과 이에 따른 반응행동을 분석한 김명언(1997)의 결과도 청소년과 성인세대간의 차이를 시사해준다. 가족의 지위를 가구주(부), 배우자(모), 자녀로 나누어 비교분석을 했을 때, 자녀들이 가정 생활의 공정성을 가장 낮게 지각하였다. 즉 청소년 세대인 자녀들은 가족조직에 대한 심리적 애착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사후공정성(가정의 중요한 결정내용, 결정과정, 결정의 파급효과를 알려주는 정도)을 낮게 지각했고, 불공정을 경험했을 때 늦게 귀가하거나 맡은 일을 건성으로 하는 경향이 높았다.

정서 반응양식에 있어서도 세대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경환, 김지현, 황석현과 장승민(1998)은 부모와 자녀세대 간에 정서 체험의 빈도, 지속시간, 강도뿐만 아니라 생리적 각성과 정서표현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즉 자녀세대가 부모세대에 비해 정서를 더 자주, 짧게, 더 약하게 경험하였으며, 아들보다 아버지의 정서 각성 정도가 낮았다. 또한 자녀가 부모에 비해 기쁨을 더욱 많이 표현한 반면, 부모는 슬픔을 더 많이 표현하였다.

심리특성에서 뿐만 아니라 행동특성에서도 세대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박임옥, 2000). 역할행동에서 중학생은 보다 진보지향적인 반면, 부모들은 전통지향적이었다. 일상행동에서도 중학생들은 TV의 쇼프로나 랩과 같은 음악을 더욱 선호하며, 컴퓨터를 더욱 많이 사용하고, 신세대의 멋내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과 부모간의 세대차에 대한 연구에서도(정경희, 2000) 이와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나은영과 민경환(1998)은 기성세대의 경우에 근대적인 생각과 규범을 지니면서 전통적인 관행과 행동에 얽매이는 경우가 많고, 신세대는 탈현대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경향이 많음을 기존자료의 재해석을 통해 주장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소년과 성인세대 간에는 심리적이고 행동적인 면에서 차이와 유사성이 공존할 가능성이 시사된다. 따라서 청소년과 성인세대의 차이와 유사성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실증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과 성인세대는 어떠한 심리적, 행동적인 특성에서 차이 또는 유사성이 있는지, 그리고 각 세대집단별로 세대차에 대한 지각의 정도와 이로 인한 갈등 정도 및 갈등대처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아울러 기성세대와 신세대는 생각이나 규범의 차이보다 행동이나 관행의 차이가 더 현저한지에 대한 여부도 검증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을 청소년과 성인세대의 차이와 유사성을 규명함에 두었다. 이를 위해, 청소년과 성인집단의 세대차에 대한 인식과 심리 행동적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청소년세대 내에서 10대와 20대, 성인세대 내에서 30대와 40대 및 50대의 세대차 인식과 심리 행동적 특성의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세대내의 차이와 유사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 사회에서의 세대차 현상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방 법

대상

본 연구를 위한 학생 표집대상은 인천지역의 초등학교 2개교(사립초등, 공립초등 각 1개교), 중학교 2개교(남중, 여중 각 1개교), 인문고등학교 2개교(남고, 여고 각 1개교), 그리고 대학교는 2개교로서 서울지역과 인천지역에서 각 1개교씩 표집되었다. 초등학생 153명, 중학생 353명, 고등학생 252명, 대학생 246명 중에서 성별을 무응답한 대학생 2명의 자료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성인 표집대상은 표집 학생들의 부모들로서, 총 1,661명(부 831명, 모 830명)이 표집되었다. 그 중에서 연령을

기록하지 않은 89명(부 41명, 모 48명)의 자료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최종 분석대상을 정리한 결과인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분석대상은 총 2,548명으로서, 청소년이 982명, 성인이 1,566명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1,184명, 여자가 1,364명으로 구성되었다. 청소년집단에는 초등학생이 153명, 중학생이 333명, 고등학생이 252명, 대학생이 24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성인은 남자가 785명, 여자가 781명이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738명(평균연령 - 14.48), 20대가 244명(평균연령 - 20.53), 30대가 187명(평균연령 - 37.67), 40대가 1,135명(평균연령 - 44.00), 50대가 244명(평균연령 - 52.25)이었다. 청소년집단 중에서 10대에는 초등학생과 중 고등학생이 포함되고, 20대에는 대학생으로 구성되었으며, 성인집단은 30대, 40대, 50대의 세 연령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도구

자기효능감 변인을 제외한 세대차 측정을 위한 변인들의 문항은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측정도구는 세대차 인식, 심리특성, 그리고 행동특성 등 크게 세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이외에 연령, 성별, 학교수준, 교육정도, 직업, 경제수준, 학업성적 등 필요한 배경정보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청소년용 질문지와 성인용 질문지의 측정변인은 동일하였으며, 단 청소년은 세대차를 지각하는 대상을 부모로, 성인은 청소년 자녀로 하여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세대차 인식은 세대차 지각, 세대갈등의 두 가지 변인을 다루었다. 세대차 지각의 측정을 위해 중학교 2학년 1학급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부모님과 세대차를 가장 많이 느끼는 사건을 쓰시오"라는 자유반응형 질문지의 응답결과를 분석해, 빈도가 높은 반응들을 기초로 하위변인을 '학업' '생활' '여가/기호'로 하였다. 이러한 세 영역에서

표 1. 세대집단별 연령별 분석대상

집단별		연령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계
		남	녀						
청소년	초등학생	남		71					71
		녀		82					82
		계		153					153
	중 학생	남		121					121
		녀		212					212
		계		333					333
	고등학생	남		133					133
		녀		119					119
		계		252					252
	대 학생	남			74				74
녀				170				170	
계				244				244	
청소년계	남		325	74				399	
	녀		413	170				583	
	계		738	244				982	
성 인	남				26	572	187	785	
	녀				161	563	57	781	
	성인 계				187	1,135	244	1,566	
총 계	남		325	74	26	572	187	1,184	
	녀		413	170	161	563	57	1,364	
	계		738	244	187	1,135	244	2,548	

의 세대차 지각의 정도를 각 5문항씩으로 측정하였다. 세대갈등 변인은 세대차로 인해 경험하는 갈등의 정도를 측정하는 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심리특성은 6개 변인, 즉 생활목표의식, 가치관, 자기효능감, 다른 세대 효능감 평가, 생활만족도, 부러워하는 대상으로 구성하였다. 생활목표의식은 18개 문항을 요인분석¹⁾하여 사회봉사(요인1: 자연보호, 봉사, 전통, 경로사상, 진정한 신앙생활), 가정화목(요인2: 화목한 가정, 건강, 진정한 우정, 효), 자아실현(요인3: 자아실현, 성공적인 직장생활, 신나는 삶, 창의성, 즐김), 부귀영화(요인4: 명예, 권력, 학벌, 부)의 4개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였다. 가

1) 생활목표의식, 가치관, 부러워하는 대상의 하위변인 구성을 위한 요인분석에서, 요인추출방법은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이었으며, 요인회전방법은 varimax rotation이었고, 요인선택의 기준은 eigenvalue 1.0이상이었다. 각 요인의 부하량은 다음과 같다: 생활목표의식 - 요인1(2.73) 요인2(2.53) 요인3(2.53) 요인4(2.46), 가치관 - 요인1(2.75) 요인2(2.39), 부러워하는 대상 - 요인1(1.95) 요인2(1.80) 요인3(1.66).

치관은 16개 문항을 요인분석하여 전통지향가치관과 진보지향가치관의 2개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자기효능감은 5개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였는데, 김의철과 박영신(1999)이 제작한 사회성효능감(예: 사회생활에서 갈등이 있었을 때,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습니까?)과 관계효능감(예: 당신은 부모와 가까운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습니까?) 및 Bandura가 제작한 스트레스대처효능감과 어려움극복효능감(안귀덕·황정규·김의철·박영신, 1997: 어머니용 질문지) 및 자기주장효능감(안귀덕·황정규·김의철·박영신, 1997: 학생용 질문지)을 기초로 하였다. 스트레스대처효능감(22번, 27번)과 자기주장효능감(25번, 30번)에 각각 2개의 문항을 제작하여 추가하였다. 나머지 3개 하위변인의 경우는 적절한 문항을 선별하여 각각 6개 문항씩으로 변인을 구성하였다. 상대 세대에 대한 효능감 평가 변인은 자기효능감 하위변인을 대표하는 내용의 5개 문항으로 구성하고, 청소년은 부모의 효능감을,

성인은 청소년 자녀의 효능감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생활만족도는 개인생활의 만족 및 인간관계의 만족을 포함하는 1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부러워하는 대상은, 비교적 대표성이 있는 9개 직업에 대해 응답자들이 부러워하는 정도를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 상에 반응한 결과에 기초하여 요인분석을 하였다. 추출된 각 요인을 전문직(성공한 벤처기업 창업자, 촉망되는 전문직 종사자, 돈 많은 사업가), 안정직(학식 있는 교사나 교수, 생활이 안정된 공무원, 사회사업가), 인기직(유명한 운동선수, 인기 있는 연예인, 권력 있는 정치가)으로 명명하고 분류하였다.

행동특성은 세대갈등 대처양식, 역할행동, 일상행동의 3개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세대갈등 대처양식 변인은 예비조사 대상인 중학생에게 “일상생활에서 부모님과 세대차로 인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합니까?”라는 질문에 자유반응한 결과를 정리 분석하여 문항을 제작하였다. 세대갈등이 유발되었을 때의 대처양식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김의철·박영신, 1997; 1999b; 박영신·김의철, 예정) 결과에 기초하여, 자기조절대처, 회피대처, 적극적 해결대처, 사회적 지원추구대처의 4개를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역할행동은 자식, 부모, 남편, 아내, 며느리, 시부모로서의 전통지향 역할행동(예: 내가 아내라면 직업을 갖기보다 가정에서 자녀양육에 전념한다)과 진보지향 역할행동(예: 내가 남편이라면 아내와 함께 설거지나 음식 등 집안 일을 한다)의 2개 하위변인으로 측정하였다. 세대차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일상행동의 목록을 선정하기 위하여 학생과 성인집단 각각 6명씩 구성하여 집단면접(FGI; Krueger, 1994; Morgan, 1996)을 하였다. 면접 결과에 기초하여 즐겨보는 TV프로그램, 즐겨듣는 음악, 신세대의 멋내기에 대한 평가, 컴퓨터 사용 정도, 통신기기 활용정도의 5가지로 확정하였다. 즐겨보는 TV프로그램은 세대별 선호도를 고려하여 쇼, 연속극, 뉴스의 3가지 유형의

표 2. 측정변인의 신뢰도

변인	하위 변인	α
세대차 인식	세대차 지각	
	학습	.75
	생활	.78
	여가/기호	.65
	세대갈등	.87
심리특성	생활목표의식	
	사회봉사	.71
	가정화목	.74
	자아실현	.76
	부귀영화	.77
	가치관	
	진보지향	.68
	보수지향	.55
	자기효능감	
	사회성효능감	.83
	스트레스대처 효능감	.78
	관계효능감	.73
	어려움극복효능감	.82
	자기주장효능감	.79
	다른 세대 효능감 평가	.78
생활만족도	.83	
부러워하는 대상		
전문직	.73	
안정직	.64	
인기직	.54	
행동특성	세대갈등 대처양식	
	자기조절	.59
	회피	.58
	적극적 해결	.76
	사회적지원 추구	.72
	역할행동	
	전통지향	.58
	진보지향	.54
	일상행동	
	신세대의 멋내기에 대한 평가	.81
컴퓨터 사용 정도	.69	
통신기기 활용정도	.55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하였다. 즐겨듣는 음악은 랩, 트로트, 클래식의 3가지 유형의 음악장르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이외에도 신세대의 멋내기에 대한

평가(머리염색, 남자가 귀걸이 하기, 연예인처럼 웃이기), 컴퓨터 사용정도(오락, PC통신 및 채팅, 문서작성 및 자료검색), 통신기기(삐삐, 핸드폰)에 대한 다양한 활용정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세대차 인식, 심리특성 및 행동특성 영역을 구성하는 변인들에 대한 측정문항의 답지는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제작되었다. 측정변인들의 신뢰도(Cronbach α)를 구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대체로 양호하나 보수지향가치, 인기직, 자기조절 대처양식, 회피 대처양식, 전통지향 역할행동, 진보지향 역할행동, 통신기기 활용정도가 약간 낮았다. 보수지향가치(9)를 제외하고는, 통신기기 활용정도(2) 인기직(3) 자기조절 대처양식(4) 회피 대처양식(4) 전통지향 역할행동(6) 진보지향 역할행동(6) 모두 문항의 수가 적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실시방법

청소년집단인 초, 중, 고, 대학생은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수업담당 교사나 교수가 직접 질문지를 실시하였으며, 질문지 실시에 소요된 시간은 약 40분 정도였다. 각 표집대상 학생들로 하여금 성인용 질문지를 부모에게 각각 실시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응답자들의 성실한 응답을 위해 불펜 등을 답례로 제공하였다. 성인용 질문지는 담임교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높은 회수율(부: 84.5%, 모: 84.3%)을 나타내었다.

결 과

집단별 세대차 인식

세대차와 관련된 인식은 영역별 세대차 지각의 정도, 세대갈등의 정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청소년과 성인집단별 세대차 인식의 차이를 공변량 분석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을 공변

인)으로 분석한 결과, 세대차 지각에 있어 학업과 생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여가/기호에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지각한 세대갈등에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즉, 학업문제와 관련해서는 성인이, 생활문제와 관련해서는 청소년이 더욱 세대차를 느꼈다. 세대차 문제로 인한 갈등은 청소년이 성인보다 더 많이 느꼈다.

표 3. 청소년과 성인집단 세대차 인식의 차이

세대차 인식	집단	청소년 M (SD)	성인 M (SD)	df	F	p
세대차 지각						
학업		2.13(.82)	2.39(.78)	1	56.82	.000
생활		2.26(.87)	1.99(.78)	1	63.36	.000
여가/기호		2.29(.81)	2.29(.72)	1	.23	.633
세대갈등		2.02(.87)	1.78(.69)	1	53.28	.000

청소년집단을 10대와 20대로, 성인집단을 30대 40대 50대로 분류하여 연령집단별 세대차 인식에 관한 공변량분석(공변인: 성별)을 하였다.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학업 생활 여가/기호와 관련된 문제에서의 세대차 지각 및 이러한 세대차로 인한 갈등에서도 모두 $p < .001$ 수준의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연령집단별 세대차 인식의 평균을 보면(표 4 참고), 먼저 학업 면에서 10대와 20대는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반면, 성인집단 내에서는 매우 차이가 있었다. 즉 30대보다는 40대가, 40대 보다는 50대가 학업에서 세대차를 느끼는 정도가 높았다. 생활면에서의 세대차 지각에서도 10대와 20대가 유사하나, 성인집단 내에서의 차이가 크다. 평균을 비교해 보면, 30대에서 40대 50대로 될수록 생활에서 세대차를 느끼는 정도가 높았다. 여가/기호의

2)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과 성인세대의 차이와 유사성을 규명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고, 성별 차이나 세대집단별 성별 상호작용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성별 변인이 외생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공변인으로 처리하였다.

표 4. 연령별 세대차 인식의 차이³⁾

연령 세대차 인식	10대 M (SD)	20대 M (SD)	30대 M (SD)	40대 M (SD)	50대 M (SD)	df	F	p
세대차 지각								
학업	2.11(.80) ^a	2.19(.89) ^a	2.22(.82) ^a	2.39(.77) ^b	2.52(.77) ^c	4	17.83	.000
생활	2.23(.86) ^{c,d}	2.34(.91) ^d	1.82(.73) ^a	1.99(.77) ^b	2.16(.82) ^c	4	21.03	.000
여가/기호	2.26(.80) ^b	2.38(.82) ^b	2.03(.67) ^a	2.29(.71) ^b	2.51(.74) ^c	4	9.16	.000
세대갈등	2.00(.89) ^c	2.07(.82) ^c	1.57(.62) ^a	1.77(.69) ^b	2.00(.67) ^c	4	23.87	.000

면에서도, 10대와 20대는 유사하나 성인집단은 매우 이질적이며, 30대가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40대, 50대의 순서로 나타났다.

세대차로 인한 갈등의 정도는 10대와 20대간에는 차이가 적은 반면, 성인집단 내에서는 매우 차이가 있었다. 30대가 가장 갈등을 적게 느끼고, 그 다음으로 40대 50대의 순서로 갈등을 보다 많이 느꼈다. 이상의 분석결과들을 종합하면, 청소년집단 내에서의 연령집단별 차이는 없는 반면, 성인집단 내에서는 높은 연령 집단으로 갈수록(즉 30대에서 40대, 50대로 올라갈수록) 학업, 생활, 여가/기호 및 세대갈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성인집단은 연령집단별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세대간의 심리적 특성 차이

생활목표의식, 가치관, 자기효능감, 다른 세대 효능감 평가, 생활만족도, 부러워하는 대상 등의 심리적 특징 면에서의 청소년과 성인집단의 차이를 공변량분석한 결과가 표 5이다.

분석결과, 생활목표의식의 하위변인인 사회봉사, 가정화목, 자아실현, 부귀영화에서 모두 $p < .001$ 수준의 매우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즉 사회봉사에서만 성인의 평균이 높고, 그 외 가정화목 자아실현 및 부귀영화에서는 성인보다 청소년의 평균이 높다. 따라서 성인이 청소년보다 사회봉사와 관련

된 생활목표를 강하게 갖고 있고, 이에 비해 청소년은 화목한 가정 및 진정한 우정, 자아실현과 여가생활, 명예 권력 학벌 부와 같은 부귀영화를 생활목표로 의식하는 정도가 더 높았다.

가치관의 두 하위변인, 즉 진보지향, 보수지향에서도 $p < .001$ 수준의 매우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진보지향가치는 청소년이, 보수지향가치는 성인이 더 높은 평균을 보임으로써, 청소년은 평등과 개인주의 등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성인은 보다 보수적이고 권위적이며 집단주의의 가치를 더욱 강하게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 중에서는 사회성효능감, 스트레스대처효능감, 어려움극복효능감, 자기주장효능감이 $p < .0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으나, 관계효능감은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p > .05$). 사회성효능감, 스트레스대처효능감, 어려움극복효능감, 자기주장효능감 모두 성인이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써, 기성세대가 청소년보다 전반적으로 효능감이 높았다. 한편 다른 세대에 대한 효능감 평가에 있어서는 성인이 청소년의 효능감을 평가하는 정도보다는 청소년이 성인의 효능감을 평가하는 정도가 더 높았다.

청소년은 성인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았다($p < .001$). 부러워하는 대상에서는 안정직과 인기직에서 $p < .001$ 수준의 차이가 있으나, 전문직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평균값을 비교하여 볼 때, 성인은 학식있는 교사나 교수, 생활이 안정된 공무원, 봉사하는 사회사업가와 같이 안전된 직업을, 반면에 청소년

3) 표 4, 표 6, 표 8에서 a, b, c, d는 사후검증(Duncan-test) 결과, $p < .05$ 수준에서 동질집단을 표시한 것임.

표 5. 청소년과 성인집단 심리특성의 차이

심리특성	집단	청소년 M (SD)	성인 M (SD)	df	F	p
생활목표의식						
사회봉사		3.31(.76)	3.49(.70)	1	36.69	.000
가정화목		4.42(.57)	4.13(.66)	1	129.62	.000
자아실현		4.15(.66)	3.69(.71)	1	264.57	.000
부귀영화		3.13(.87)	2.94(.81)	1	32.90	.000
가치관						
진보지향		4.15(.49)	3.80(.54)	1	238.76	.000
보수지향		2.77(.54)	3.20(.49)	1	388.59	.000
자기효능감						
사회성효능감		2.80(.74)	3.02(.68)	1	13.78	.000
스트레스대처효능감		2.69(.74)	2.85(.63)	1	27.62	.000
관계효능감		3.44(.64)	3.39(.60)	1	3.42	.065
어려움극복효능감		3.00(.73)	3.16(.64)	1	26.89	.000
자기주장효능감		3.03(.74)	3.15(.64)	1	13.80	.000
다른세대효능감평가		3.47(.66)	3.20(.64)	1	108.66	.000
생활만족도		3.19(.70)	3.10(.58)	1	17.11	.000
부러워하는 대상						
전문직		3.35(1.06)	3.33(.94)	1	1.70	.193
안정직		3.13(.91)	3.38(.86)	1	53.83	.000
인기직		2.56(.94)	2.06(.83)	1	231.04	.000

은 유명한 운동선수, 인기있는 연예인, 권력있는 정치가와 같이 인기있는 직업을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연령집단별로 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공변량분석하였을 때에도 청소년과 성인집단별 차이에 대한 분석에서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표 6 참고). 단 자기효능감의 세 하위변인인 사회성효능감과 관계효능감⁴⁾ 및 자기주장효능감에서 $p < .05$ 수

준의 차이가 있고, 부러워하는 대상 중에서 전문직에 대한 선호의 정도에서 $p < .001$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점만 다르다.

표 6에서 연령집단별 심리특성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먼저 생활목표의식에 있어 청소년세대의 10대와 20대는 동일하고, 성인세대의 30대 40대 50대가 서로 동일하였으며, 30대 이상의 성인세대가 20대 이하의 청소년세대보다 사회봉사를 생활목표로 설정하는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생활목표로서 가정화목의 경우는 10대와 20대가 동일하게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30대, 40대와 50대의 순서로 나타났다. 자아실현과 관련하여서는 10대와 20대간에 차이가 있고 성인세대의 세 집단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즉 20대가 생활에서 자아실현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10대이며, 3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자아실현을 생활목표로 하는 정도

4) 표 6에서 연령집단간에 관계효능감이 동질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성별효과가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될 수도 있다. 이는 연령별 성별 관계효능감의 차이를 이원변량분석하였을 때, 연령별 성별 상호작용효과($F=4.14, p < .01$)가 있으나 연령별 주효과($F=2.13, p > .05$) 성별 주효과($F=0.50, p > .05$)는 없는 사실로부터 유추된다. 즉 남자(10대:3.56, 20대:3.52, 30대:3.32, 40대:3.37, 50대:3.37)는 30대에 관계효능감이 약간 감소하고, 여자(10대:3.37, 20대:3.36, 30대:3.49, 40대:3.39, 50대:3.40)는 오히려 30대에 관계효능감이 약간 증가하나, 성별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연령별로는 관계효능감에서 차이가 없다.

표 6. 연령별 심리특성의 차이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df	F	p
심리특성	M (SD)	M (SD)	M (SD)	M (SD)	M (SD)			
생활목표의식								
사회봉사	3.34(.79) ^{ab}	3.23(.64) ^a	3.48(.80) ^c	3.51(.70) ^c	3.42(.64) ^{bc}	4	10.59	.000
가정화목	4.42(.58) ^c	4.44(.52) ^c	4.24(.59) ^b	4.10(.67) ^a	4.17(.64) ^{ab}	4	35.74	.000
자아실현	4.10(.68) ^b	4.31(.58) ^c	3.74(.74) ^a	3.66(.72) ^a	3.74(.65) ^a	4	71.52	.000
부귀영화	3.08(.90) ^c	3.32(.80) ^d	2.90(.88) ^a	2.93(.80) ^{ab}	3.04(.82) ^{bc}	4	13.46	.000
가치관								
진보지향	4.13(.51) ^c	4.21(.43) ^c	3.92(.55) ^b	3.79(.54) ^a	3.77(.52) ^a	4	62.41	.000
보수지향	2.82(.55) ^b	2.60(.46) ^a	3.12(.48) ^c	3.19(.49) ^c	3.28(.49) ^d	4	104.88	.000
자기효능감								
사회성효능감	2.92(.76) ^{ab}	2.87(.69) ^a	2.93(.68) ^{ab}	3.03(.68) ^b	3.03(.68) ^b	4	3.33	.010
스트레스대처효능감	2.71(.75) ^a	2.63(.70) ^a	2.84(.59) ^b	2.85(.63) ^b	2.89(.62) ^b	4	7.64	.000
관계효능감	3.45(.66) ^a	3.41(.56) ^a	3.47(.60) ^a	3.38(.61) ^a	3.38(.57) ^a	4	2.58	.036
어려움극복효능감	2.98(.74) ^a	3.05(.70) ^{ab}	3.13(.63) ^{bc}	3.16(.65) ^{bc}	3.17(.63) ^c	4	7.35	.000
자기주장효능감	3.04(.75) ^{ab}	3.02(.72) ^a	3.09(.65) ^{abc}	3.15(.64) ^{bc}	3.20(.61) ^c	4	2.95	.019
다른세대효능감평가	3.47(.68) ^p	3.50(.58) ^p	3.20(.63) ^a	3.19(.64) ^a	3.25(.63) ^a	4	28.53	.000
생활만족도	3.23(.72) ^p	3.10(.59) ^a	3.12(.60) ^a	3.10(.58) ^a	3.13(.54) ^{ab}	4	6.51	.000
부러워하는 대상								
전문직	3.21(1.09) ^a	3.80(.86) ^b	3.29(.96) ^a	3.32(.94) ^a	3.37(.92) ^a	4	19.72	.000
안정직	3.07(.94) ^a	3.31(.77) ^b	3.35(.83) ^{bc}	3.36(.87) ^{bc}	3.49(.84) ^c	4	18.84	.000
인기직	2.64(.93) ^c	2.36(.93) ^b	1.98(.82) ^a	2.07(.85) ^a	2.06(.77) ^a	4	62.92	.000

가 낮음을 알 수 있다. 부귀영화에서는 연령집단별로 차이가 있는데, 20대가 부귀영화를 생활목표로 하는 정도가 가장 많고, 30대 40대가 가장 적었다.

가치관에서 살펴보았을 때, 진보지향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청소년세대인 10대와 20대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30대가 높으며, 40대와 50대는 동일하게 가장 낮다. 보수지향적인 가치에서는 50대의 평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30대와 40대, 10대, 20대의 순서로 20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10대와 20대는 40대와 50대에 비해 부모는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같이 결정해야 한다는 등, 아들이든 딸이든 구별없이 잘 키우면 된다는 등의 가치를 더욱 추구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부부사이가 나빠도 자식을 생각해서 이혼을 하면 안 된다는 등, 자식은 부모의 뜻을 반드시 따라야 하고, 대를 잇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한

다는 등의 보수적인 생각에 대해 50대가 가장 동감하며 추구하였다.

자기효능감의 경우는 5개의 하위변인 모두에서 10대와 20대, 30대와 40대 및 50대는 유사하며, 청소년보다는 성인세대에서 스트레스대처효능감과 어려움극복효능감 뿐만 아니라 사회성효능감 자기주장효능감이 모두 높았다. 다른 세대의 효능감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청소년세대인 10대와 20대가 동일하고, 성인세대인 30대 40대 및 50대가 동일하다. 즉 20대 미만의 청소년들이 부모의 효능감에 대한 평가가 30대 이상의 성인들이 자녀의 효능감에 대한 평가보다 더욱 긍정적이었다.

생활만족도의 경우는 10대가 가장 높고, 20대 이상은 동일하였다. 부러워하는 대상에 있어서는 전문직을 20대가 가장 원하고, 10대와 30대 이상은 동일하였다. 안정직의 경우는 50대의 평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30대와 40대, 20대, 10대의 순서로 나타났다. 인기직은 10대가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이고, 그 다음이 20대이며, 30대 이상은 동일하다. 따라서 벤처기업 창업자나 전문직 종사자를 20대가 가장 부러워하고, 학식있는 교수나 안정된 공무원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선호하며, 운동선수나 연예인과 같이 인기가 있는 직업은 10대가 가장 선호하며 그 다음이 20대이고, 30대 이상은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연령집단에서 인기직은 전문직이나 안정직보다 낮은 평균을 보였다.

세대간의 행동적 특성 차이

표 7에서 청소년과 성인세대의 행동적 특성의 차이를 공변량분석하였다. 세대갈등 대처양식의 경우는 회피와 적극적 해결 및 사회적 지원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자기조절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평균을 비교해 보면, 청소년은 성인보다 회피양식이나 사회적 지원 추구양식을 더 많이 사용하며, 성인은 청소년보다 적극적 해결양식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역할행동과 관련하여 전통지향적 역할행동 및 진보지향적 역할행동 모두 $p < .001$ 수준에서 매우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전통지향 역할행동은 성인이, 진보지향 역할행동은 청소년이 더 높은 평균을 보였다. 따라서 청소년일수록 '내가 남편이라면 아내와 함께 집안일을 한다'든가 '내가 시부모라면 자식에게 신세지지 않고 따로 산다'는 등의 보다 진보적인 역할행동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성인은 청소년보다 '내가 자식이라면 부모의 말에 반드시 순종한다'든가 '내가 아내라면 직업을 갖기보다 가정에서 자녀양육에 전념한다'는 등 보다 전통지향적이고 보수적이었다.

일상행동에서는 즐겨보는 TV프로그램에서 쇼나

표 7. 청소년 성인집단별 행동특성의 차이

행동특성	집단	청소년 M (SD)	성인 M (SD)	df	F	p
세대갈등 대처양식						
자기조절		3.15(.81)	3.21(.78)	1	3.46	.063
회피		2.35(.77)	1.99(.72)	1	147.00	.000
적극적 해결		2.52(.85)	3.03(.80)	1	221.85	.000
사회적 지원추구		2.64(.93)	2.50(.84)	1	10.05	.002
역할행동						
전통지향		2.63(.66)	2.96(.56)	1	152.21	.000
진보지향		3.37(.65)	3.13(.53)	1	90.04	.000
일상행동						
TV: 쇼, 가요, 코메디, 오락		3.84(1.18)	2.61(.96)	1	812.63	.000
TV: 연속극, 드라마		3.46(1.13)	3.07(1.05)	1	63.45	.000
TV: 시사토론, 뉴스		2.72(1.03)	3.71(.96)	1	578.62	.000
음악: 랩, 힙합, 메탈, 록		3.67(1.36)	1.57(.87)	1	2198.36	.000
음악: 트로트		1.57(.90)	3.16(1.12)	1	1353.47	.000
음악: 클래식		2.51(1.23)	2.41(1.09)	1	4.15	.042
음악: 국악, 민요		1.55(.89)	2.39(1.11)	1	378.28	.000
신세대 멋내기예 대한 평가		2.81(1.08)	1.68(.73)	1	970.43	.000
컴퓨터 사용 정도		2.82(.99)	1.61(.78)	1	1273.85	.000
통신기기 활용 정도		2.26(1.25)	1.92(1.00)	1	58.08	.000

오락, 연속극 드라마, 시사토론 뉴스 모두 $p < .001$ 수준의 매우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은 성인보다 쇼 오락프로나 연속극 드라마를 TV에서 즐겨 보고, 반면에 성인은 시사토론 뉴스 프로그램을 즐겨보았다. 즐겨 듣는 음악의 경우는 랩/힙합, 트로트, 국악/민요에서 $p < .001$ 수준의 차이를, 클래식에서 $p < .05$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음악과 관련해서 청소년은 랩/힙합이나 클래식을 더욱 즐겨 듣고, 반면에 성인은 트로트나 국악/민요를 더욱 즐기는 현저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외에 신세대의 멋내기에 대한 평가 및 컴퓨터 사용 정도 통신기기 활용정도에서도 $p < .001$ 수준에서 매우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머리염색이나 연예인처럼 옷 입기 등 신세대의 멋내기에 대해 청소년이 성인보다 훨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오락 PC통신 문서작성 자료검색 등 컴퓨터의 사용은 청소년인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이 성인보다 문자 메시지 전송이나 음악 녹음 등 통신기기를 훨씬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연령집단별로 행동적 특성의 차이를 공변량분석한 결과가 표 8이다. 세대갈등 대처양식으로서 자기조절을 제외하고는, 청소년과 성인집단별 차이에 대한 분석에서와 유의도 수준이 동일하였다.

표 8에서 연령집단별 행동특성의 평균을 비교해보면, 세대갈등으로 인한 대처양식에서, 자기조절양식은 청소년집단인 10대와 20대가 동일하나, 성인집단 내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즉 30대가 자기조절양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50대가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회피양식의 경우도 10대와 20대는 유사하며, 30대가 가장 회피양식을 적게 사용하며, 그 다음으로 40대, 50대의 순서로 회피양식을 많이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성인집단에서 가장 회피양식을 많이 사용하는 50대보다도, 청소년집단인 10대와 20대가 세대갈등에 대해 회피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정도가 더 높았다. 적극적 해결양식의 경우 10대와 20대는 유사하였

고, 30대가 가장 적극적 해결양식을 많이 사용하였고, 그 다음으로 40대 50대의 순서로 나타났다. 성인집단에서 가장 적극적 해결양식을 적게 사용하는 50대 보다도 10대와 20대는 적극적 해결양식을 적게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원추구양식에서 10대보다는 20대가 더 높으며, 성인집단 내에서는 30대가 사회적 지원추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으로 40대 50대의 순서를 나타내었다.

전통지향 역할행동은 50대가 가장 높고 20대가 가장 낮았다. 이와 반대로 진보지향 역할행동에 있어서는 20대의 평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10대이며, 30대 이상은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통지향적이므로 50대가 가장 전통지향적인 역할행동을 하고, 진보지향적인 역할행동을 적게 수용하였다. 한편, 10대보다도 20대가 진보지향적인 역할행동을 수용하며, 전통지향적인 역할행동을 수용하는 정도가 낮았다.

일상행동을 보면, TV시청에 있어 쇼나 가요프로는 10대가 가장 많이 보고 그 다음 20대, 30대 이상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연속극과 드라마에서도 10대의 평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20대와 30대, 40대와 50대의 순서를 보였다. 이와 반대로 시사토론 및 뉴스프로에서는 40대 이상의 평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30대, 20대 미만의 순서로 나타났다. 즉 쇼나 가요, 연속극과 같은 TV프로는 청소년 중에서도 어린 10대가 가장 선호하며, 뉴스나 시사토론프로는 성인세대 중에서도 나이가 든 40대 이상이 가장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악듣기와 관련된 일상행동을 보면, 랩 힙합 메탈 종류의 음악은 연령집단별 선호도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여, 10대의 평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20대 30대 40대 50대의 순서로 점차 낮아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트로트음악은 40대 이상의 평균이 가장 높고, 그 다음 30대, 20대 미만의 순서로 나타났다. 클래식음악에 대해

표 8. 연령별 행동특성의 차이

연령	10대 M (SD)	20대 M (SD)	30대 M (SD)	40대 M (SD)	50대 M (SD)	df	F	p
세대갈등 대처양식								
자기조절	3.17(.84) ^a	3.13(.72) ^a	3.34(.80) ^b	3.22(.77) ^{ab}	3.09(.79) ^a	4	3.47	.008
회피	2.37(.77) ^d	2.26(.72) ^{c,d}	1.79(.63) ^a	1.98(.73) ^b	2.20(.71) ^c	4	42.25	.000
적극적 해결	2.51(.88) ^a	2.58(.80) ^a	3.18(.76) ^d	3.04(.80) ^c	2.85(.78) ^b	4	59.63	.000
사회적 지원추구	2.60(.94) ^b	2.78(.89) ^c	2.61(.92) ^b	2.51(.83) ^{ab}	2.37(.82) ^a	4	4.76	.001
역할행동								
전통지향	2.73(.66) ^b	2.36(.55) ^a	2.86(.55) ^c	2.95(.56) ^c	3.07(.58) ^d	4	53.07	.000
진보지향	3.30(.65) ^b	3.60(.58) ^c	3.17(.56) ^a	3.12(.52) ^a	3.11(.53) ^a	4	35.04	.000
일상행동								
TV: 쇼, 가요, 코메디, 오락	3.98(1.15) ^c	3.41(1.15) ^b	2.67(.98) ^a	2.60(.95) ^a	2.56(.99) ^a	4	218.05	.000
TV: 연속극, 드라마	3.52(1.13) ^c	3.29(1.11) ^b	3.26(1.03) ^b	3.04(1.04) ^a	3.05(1.11) ^a	4	20.33	.000
TV: 시사토론, 뉴스	2.69(1.05) ^a	2.83(.98) ^a	3.56(1.01) ^b	3.71(.96) ^c	3.82(.92) ^c	4	141.12	.000
음악: 랩, 힙합, 메탈, 록	3.79(1.35) ^c	3.32(1.31) ^d	1.80(.95) ^c	1.59(.88) ^b	1.33(.69) ^a	4	575.23	.000
음악: 트로트	1.59(.91) ^a	1.49(.83) ^a	2.93(1.18) ^b	3.17(1.10) ^c	3.29(1.16) ^c	4	337.60	.000
음악: 클래식	2.54(1.28) ^b	2.43(1.10) ^b	2.48(1.12) ^b	2.44(1.08) ^b	2.23(1.12) ^a	4	3.07	.016
음악: 국악, 민요	1.62(.94) ^b	1.37(.69) ^a	2.13(1.09) ^c	2.39(1.09) ^d	2.57(1.18) ^c	4	95.89	.000
신세대 멋내기에 대한 평가	2.74(1.12) ^c	3.05(.93) ^d	1.88(.76) ^b	1.67(.74) ^a	1.55(.62) ^a	4	248.27	.000
컴퓨터 사용 정도	2.73(1.03) ^c	3.06(.81) ^d	1.61(.76) ^b	1.65(.81) ^b	1.44(.66) ^a	4	345.02	.000
통신기기 활용 정도	1.99(1.17) ^a	3.10(1.08) ^b	1.92(1.03) ^a	1.93(1.01) ^a	1.88(.96) ^a	4	66.27	.000

서 40대 미만의 평균은 모두 동일하고, 50대는 40대 미만보다 낮은 값을 보였다. 국악 및 민요에 대해서는 50대의 평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40대, 30대, 10대, 20대의 순서로 평균이 낮아졌다.

신세대의 멋내기에 대한 평가를 비교하여 보면, 20대가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10대, 30대, 40대 이상의 순서로 긍정적인 평가의 정도가 낮아졌다. 컴퓨터 사용 정도에 있어서도 20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10대, 30대와 40대, 50대의 순서로 50대는 사용 정도가 매우 적었다. 통신기기는 20대가 가장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10대와 30대 이상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청소년과 성인세대의 차이

지금까지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의 부산물로

세대차이의 중요성 및 역기능을 지적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구체적으로 세대차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체계적으로 누적되어 오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과 성인세대 간에 세대차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나아가서 심리적이고 행동적인 특성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 및 유사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첫째, 청소년과 성인세대 간에 무엇보다 현저한 차이는 일상행동에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이 성인보다 컴퓨터를 훨씬 많이 사용하고, 통신기기도 다양하게 활용한다. 선호하는 음악에서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청소년일수록 랩이나 힙합을, 성인은 트로트나 민요를 선호한다. TV를 시청할 때에도 청소년은 쇼나 오락프로그램을 즐긴다면, 성인은 시사토론이나 뉴스를 더욱 많이 시청한다. 머리를 염색한다든가 남자가 귀걸이하거나 연예인처럼 옷 입기 등 신세대의 개성적 멋내기에 대해서도 청소년

이 훨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박재홍(1995)은 신세대 문화 중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 컴퓨터 통신이나 게임이 여가활동의 주요 부분으로 정착해 간다는 점과, 신세대만의 독특한 놀이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는 두 가지를 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신세대들이 컴퓨터 통신이나 오락 외에도 문서작성이나 자료검색 등의 목적으로 컴퓨터를 매우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명언(1990)은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 기술에의 적응능력이 중요시되는 기업풍토가 조성됨에 따라, 개인이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는 기계나 기술 사용으로부터 기인하는 기술스트레스(techno-stress, Brod, 1988)가 되며, 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동일시가 아닌 컴퓨터와의 동일시 현상을 보이고 일상생활에서도 컴퓨터적 사고방식과 행동을 보이는 기술중심적 인간(techno-centered individual)이 되는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기업 구성원들의 인간관계가 전자매체를 통한 의사소통방식을 채택하게 되므로써, 업무수행 효과가 증진되는 순기능도 있지만, 사회적 직접 접촉의 극소화로 인간관계가 경직화되고 건조해지며 기업구성원들의 조직생활에의 참여를 감소시키는 문제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정보화 사회의 영향은 기업 조직이나 기업구성원의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학교 등 모든 조직의 풍토와 인간관계도 변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정보화 시대의 청소년 집단은 컴퓨터로 오락을 하거나 통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서를 작성한다든가 자료를 검색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매우 많이 사용한다. 반면에 성인은 컴퓨터의 사용 정도가 적으며, 정보 기술에의 적응력이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성인들은 만남이나 전화 등 기존의 의사소통 방식을 선호하는 반면에, 청소년은 급변하

는 정보기술을 수용하여 정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전자우편과 같은 전자매체를 통한 의사소통을 선호한다. 첨단기술의 개발로 인간생활의 급속한 변화는 청소년과 성인세대의 의사소통 방식 자체를 변화시킴으로써 세대간의 차이를 더욱 증폭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Tapscott, 1998).

청소년이 성인보다 신세대들의 개성적인 멋내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본 연구의 결과는, 신세대의 전형적인 가치가 개성주의와 여가주의로 분류되는 결과(문용린, 류방란, 유한구, 박종효, 최지영, 1996)와도 밀접히 관련된다. 즉 기성세대는 사회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가정적으로 안정되기 위해 자신의 개성을 희생하고 여가를 즐기기보다 일과 성취를 중시하였다면, 신세대들은 무엇보다 자신의 개성과 여가를 중시한다는 것이다. 일과 여가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한국사회학회(1990)의 분석 결과도, 40대 이상은 '일 우선'에 대한 반응율이 높으나, 40대 미만은 '여가 우선'에 대한 반응율이 높은 차이가 확인된 바 있다.

둘째, 청소년과 성인은 세대갈등에 대한 대처행동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즉 청소년이 성인보다 세대차로 인한 갈등을 회피하는 경향이 훨씬 높고, 성인은 청소년보다 더욱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이와 같이 청소년이 성인보다 회피양식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결과는 한국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김의철과 박영신(1997, 1999)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신세대의 일상적 의식을 분석한 결과(박재홍, 1995)와도 무관하지 않다. 즉 신세대 자신들의 주요 고민거리인 진로문제에 대해 기성세대를 고민상담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였다.

셋째, 성인은 보다 보수적이고 전통지향적이며, 청소년은 더욱 진보지향적이라는 차이가 확실히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결론은 역할행동, 부러워하는 대상, 가치관과 관련된 결과들에서 확인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자식 부모 남편 아내 며

느리 시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해 성인은 보다 전통적이고, 청소년은 보다 진보적인 차이가 있다. 부러워하는 대상에 있어서도 청소년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와 같이 인기있는 직업을, 성인은 공무원이나 교수와 같이 안정되고 인정받는 직업을 선호하므로써 훨씬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 가치관의 면에서 청소년은 성인보다 진보적인 가치를 지향하였는데, 아들이든 딸이든 구별없이 잘만 키우면 된다는가, 남자든 여자든 모두 동등한 권리를 주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성인이 청소년보다 보수적이라는 결과는 한국사회학회(1990)의 조사 결과와도 일치된다. 나은영과 차재호(1999)의 연구에서도, 정조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가 시집과 친정이 동등해야 한다는 등의 남녀 평등의식과 관련하여 세대차가 매우 컸다. 이외에도 풍요로운 생활, 개인주의, 자기주장성의 면에서 세대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나은영과 차재호(1999)의 연구에서 청소년이 더 높은 자기주장성을 나타낸 결과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보다 성인이 자기주장효능감이 더 높다. 이외에도 어려움극복효능감, 스트레스대처효능감, 사회성효능감과 같이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에서 성인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넷째, 청소년과 성인은 자기효능감의 정도에서도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성인이 청소년을 평가하는 것보다 청소년이 성인을 더욱 효능적이라고 평가하며, 실제적으로도 성인이 청소년세대보다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효능감이 높다. 또한 청소년과 성인은 세대차를 지각하는 영역에서 차이가 있는데 청소년은 생활에서, 성인은 학업에서 세대차를 더 많이 지각하고, 세대갈등은 청소년이 더욱 많이 지각하고 있다.

청소년과 성인세대의 유사성

청소년과 성인세대의 차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두 집단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대처양식으로서 자기조절의 중요성이 공통적으로 부각되었다. 즉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세대갈등에 대한 대처양식으로 꼭 참고 속으로 삭힌다는가 자기의 기분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등 자기조절적인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청소년(M=3.15)이나 성인(M=3.21) 모두, 세대갈등 대처양식의 4 하위변인들 중에 자기조절적 대처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사실에 기초한다.

자기조절의 중요성은 스트레스에 대한 선행연구(김의철·박영신, 1997; 김의철·박영신, 1999; 박영신·김의철, 예정)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성취에 대한 연구결과들(김의철·박영신, 1998; 박영신·김의철, 1999)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가족으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반응행동을 분석한 김명언(1997)의 연구결과에서도 가족들에게 시정을 요구한다는가,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을 건성으로 한다는가, 그럴 듯한 핑계를 대고 늦게 귀가하기보다는, 더 노력하거나 그냥 참고 지낸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즉 가구주나 배우자 및 자녀들 모두 공통적으로 가정에서의 불공정한 대우에 대해 참고 지내는 것과 같은 자기조절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사회적 성공을 위해 타고난 재능, 본인의 노력, 배경이나 연출, 연륜, 운수나 팔자 중에서 어느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였을 때, 40대 미만(64.3%)이든 40대 이상(70.1%)이든 모두 본인의 노력(즉, 자기조절)이 가장 중요하다는 일치된 반응을 보였다(한국사회학회, 1990).

두 번째로 청소년과 성인세대 모두 가정의 화목을 생활의 목표로 삼고 있는 정도가 현저하게 높은 유사점이 있다. 생활목표의식의 4 하위변인들 중에서 가정화목의 평균이 청소년(M=4.42)과 성인(M=4.13)집단 모두에서 가장 높으며, 이러한 평균값들이 5점 척도 상에서의 값임을 고려하여 볼 때, 한국 사람들은 가정의 화목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가족에 대한 심리적 애착정도(몰입도)를 분석한 연구와도 관련된다. 김명언(1997)이 심리적 애착을 가정에서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한 만족도, 다시 태어날 경우 현재 가족의 재선택 여부, 가족에 대한 긍지, 다른 가족원과의 가치관 유사성, 가족 일에 대한 관심도의 다섯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한국 사람들은 자기의 가족에 대해 심리적 애착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인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행복한 가정이나 부모에 대한 효도와 같은 화목한 가정생활을 생활목표로 하는 정도가 높다는 사실은, 세대구분에 관계없이 한국인들이 가정생활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경신(1998)도 청소년, 중년, 노년 세대 모두 가족가치관에 관하여 어느 정도 전통성을 유지하고 있어,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가족의 중요성이나 결혼의 필요성이 강조된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박광배와 김미숙(1992)도 한국 청소년의 가치관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가 시대변화에 따라 바뀌어도 한국 사회문화의 근간이 되는 집단주의적 가족문화는 쉽게 붕괴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셋째, 자기효능감의 5개 하위변인 중에서 관계효능감의 평균이 가장 높은 사실(학생 $M=3.44$, 성인 $M=3.39$)로부터, 전반적으로 관계에 대한 효능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Kahn(1979)은 성공한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대인관계나 가정적, 사회적 의무를 완수하는 관계적 가치를 강조한다고 지적하였다(Yu & Yang, 1994). 김의철, 박영신과 곽금주(1998)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국 청소년의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관계효능감이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관계효능감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은 만족스러운 생활이 성공적인 인간관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이 집단주의 사회

(Hofstede, 1991)이며, 한국인들이 의미있는 인간관계 즉 내집단의 형성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넷째, 비록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성인보다 가치관과 역할행동에서 진보적이었지만, 두 세대집단의 가치관이 보수지향적이라기 보다는 진보지향적이고, 또한 역할행동에서도 전통지향적이기 보다는 진보지향적인 정도가 높으므로써, 전반적으로 진보지향적인 성향이 강하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과 성인세대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공유된 특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들이 있다.

문용린, 류방란 유한구, 박종효와 최지영(1996)은 가치를 기성세대의 내면화 정도가 강한 전통가치와, 신세대가 강하게 지향하는 신세대가치, 및 한국 사회에서 친구세대를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공유가치의 세 가지로 분류한 바 있다. 여기에서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개성을 마음껏 발휘하는 개성주의와, 여가 즐기기를 중시하는 여가주의가 신세대의 전형적인 가치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성세대와 공유하는 가치들도 있었다. 일을 원칙대로 해결하려는 합리주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다원주의, 모든 일을 공개하는 개방주의, 느낌을 중시하는 감정주의, 경제적 능력을 중시하는 경제주의가 이에 해당한다.

김두섭, 박경숙과 이세용(1999)이 40~59세에 속하는 중년 남녀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노후에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는 반응은 17.9%였으며, 따로 살고 싶다는 반응은 67.0%로 자녀와의 동거의사가 낮았다. 이와 같이 중년세대들이 노후에 자녀와 동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사실은 과거의 대가족 중심의 전통적인 가치와 매우 다른 현상이다. 한편 동거를 원한 경우에, 같이 살고 싶은 자녀로는 장남이 82.8%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동거를 원하는 경우에 아직도 장남을 선호하는 의식이 매우 강하다는 사실은 중년

세대 내에서도 이중적인 가치가 매우 강하게 공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세대갈등의 실상과 함의

본 연구의 분석 결과들로부터 분명하게 확인된 사실은, 청소년과 성인 세대간에 심리 행동특성에서 분명한 차이의 존재이다. 청소년은 성인보다 가치관이나 역할행동에 있어 보다 진보적이고, 교수나 공무원과 같이 안정된 직업보다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와 같이 인기있는 직업을 더욱 부러워한다. 또한 랩 힙합 등 선호하는 음악이나 TV시청 경향성 등의 취향이 성인에 비해 강할 뿐만 아니라, 컴퓨터 사용이나 통신기기 활용 등 기능의 면에서도 훨씬 능숙하다는 차이가 있다. 반면에 성인은 성역할이나 부모자녀관계 부부관계 등과 관련된 가치의 면에서 전통지향적인 보수성이 강하고, 청소년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을 뿐만 아니라, 최근 음악이나 컴퓨터 등의 변화에 대한 적응도가 낮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세대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심각한 세대갈등을 유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는 몇 가지의 증거들을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세대차 문제로 인한 갈등의 지각에 있어서 전체집단의 평균을 보면,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 상에서 2점 미만의 값을 나타내므로써, 청소년이나 성인 모두 그렇게 심각한 갈등을 겪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가치관의 면에서 두 세대를 비교할 때는 상대적으로 청소년이 진보지향적이고 성인이 보수지향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도 보수지향의 평균보다 진보지향의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성인이 청소년보다는 진보지향적이 아니지만, 성인 내에서는 보수적이기보다 진보적인 경향이 더욱 강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패턴은 가치관에서만이 아니라

역할행동과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두 세대를 비교할 때는 청소년이 보다 진보지향적인 역할행동을, 성인이 보다 전통지향적인 역할행동을 하지만,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성인도 전통지향 역할행동보다는 진보지향 역할행동에서의 평균이 더 높다.

그러므로 세대차이가 있다고 해서 세대갈등을 유발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두 개념을 분명히 구별해야 할 필요가 시사된다. 세대차이가 세대갈등을 유발하는 정도는, 세대갈등에 대한 대처양식에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의존할 것으로 예측된다. 즉 어떠한 대처양식을 선호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세대갈등을 해소시킬 수도 있고, 심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상관분석 결과에 의하면, 세대갈등은 회피 대처양식과 높은 정적관계이고, 이와 대조적으로 적극적 해결 대처양식과는 부적관계이다. 따라서 문제를 회피하는 경우에 세대차이로 인한 갈등이 많은 경향이 있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는 갈등이 적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소년과 성인세대 내에서 연령집단별 차이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세대 내에서도 20대는 10대와 차이가 있고, 성인세대 내에서도 30대는 40대 및 50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대는 역할행동 및 일상행동에서 10대보다 진보적이다. 즉 전통지향 역할행동을 가장 선호하지 않고 진보지향 역할행동은 가장 지지하며, 신세대들의 개성적인 멋내기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컴퓨터나 통신기기도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30대는 40대나 50대 보다도 세대차를 가장 적게 인식하고 세대갈등을 지각하는 정도도 가장 낮았다. 30대가 40대 이상 집단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30대가 성인집단 중에서 연령적으로 젊은 이유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이므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을 자녀로 둔 40대나 5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이 강하고 갈

등을 유발하는 문제가 그다지 크지 않으며, 비록 자녀세대와의 세대차로 인한 문제가 있다고 해도 아직 어린 자녀와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모의 입장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청소년 세대 내에서도 10대와 20대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성인세대 내에서도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다. 연령집단별 분석결과를 살펴볼 때, 성인들 중에서 청소년 초기 자녀를 둔 30대 부모집단이, 청소년 중기 및 후기 자녀를 둔 40대 이상의 부모집단보다 세대차이와 갈등이 적다고 할 수 있다.

박재홍(1995)은 세대차이를 역사적 사건과 문화적 사회화 경험의 차이에서 비롯된 정서, 의식구조, 행위유형, 생활양식의 차이로 보고, 세대갈등은 그러한 차이에 기인한 세대간 이해대립의 뜻으로 구분한다. 나아가서 세대갈등을 '드러난(explicit) 세대갈등'과 '감추어진(implicit) 세대갈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박재홍(1995)이 제안한 개념을 적용하면, 비록 이 연구에서 세대갈등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것은 '드러난 세대갈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심리 행동특성에서 세대차이의 증가는, '감추어진 세대갈등'의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

청소년과 성인세대의 차이와 유사성을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및 분석에 관련된 제한점과 후속연구에의 시사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표집대상은 경기도 내에 국한되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표집대상을 경상도 전라도 등의 여타지역을 포함시킴으로써,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들을 재확인하고 일반화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또한 분석대상 중에 30대가 적고 40대가 많아 다른 연령집단과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는 이 연구의 표집 청소년의 부모들이 성인 표집대상이었기 때문에, 30대는 주로 초등학교의 부모에 해당하는 반면, 40대는 중·고·대학생들의 부모들이 대부분 포함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의 성인세대에 대한 결과는 연령집단별로 볼 때, 40대가 중심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세대에서는 10대가 20대보다 많은데, 이는 10대의 초, 중, 고등학생들은 10대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 반면, 20대에는 대학생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측정변인의 신뢰도 면에서 볼 때, 대부분 양호하나 부분적으로는 신뢰도가 낮게 나타난 경우도 있다. 세대갈등 대처양식의 하위변인인 자기조절(4문항)과 회피(4문항), 부러워하는 대상의 하위변인인 인기직(3문항), 역할행동의 하위변인인 전통지향(6문항)과 진보지향(6문항)은, 측정 문항의 수가 적은 점이 낮은 신뢰도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치관의 하위변인인 보수지향(9문항)은 문항 수에 비해서도 신뢰도다. 이와 같이 신뢰도가 낮은 변인들에 대해서는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앞에서 기술된 제한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년과 성인세대간의 차이 및 연령집단별 차이와 유사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하고 밝힌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목적이 청소년과 성인세대의 차이와 유사점을 밝히는데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과 성인세대에 대한 비교에 초점을 두었으며, 세대차이나 세대갈등의 원인과 영향을 체계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후속연구에서는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 자료를 짝 지워 세대차와 관련된 부모-자녀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부모의 심리 행동특성과 자녀의 부모에 대한 세대차 지각, 부모와 세대차 지각정도나 갈등이 청소년의 생활만족도나 성취와 같은 심리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과 부모의 세대갈등과 자기효능감 및 생활만족도의 관계 등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청소년과 부모집단 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사집단 및 발달적으로 성인의 단계를 넘어선 노인집단에 대해서도 세대차 인식 및 심리 행동특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및 삶의 질을 세대차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므로써, 한국사회 변동과 세대갈등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세대차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세대에 특수하게 수용 또는 거부된 문화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민경환, 김지현, 황석현과 장승민(1998)의 연구에서 세대간에 정서 표현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부모세대는 슬픔을, 자녀세대는 기쁨을 더 많이 표현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의 성공에 대한 기쁨의 표현보다는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나 아픔에 대한 슬픔의 표현이 사회적으로 보다 허용되어 왔는데, 부모세대들에게는 아직 전통적인 기대가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 데 반해, 자녀세대들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연구자들은 설명한다. 이러한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세대차이 현상의 근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변동에 따른 각 세대집단들의 경험과 세대별로 형성된 문화적 특징들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규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경신(1998). 가족가치관의 세대별 비교연구 - 노년, 중년, 청소년세대를 중심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36(10), 145-161.
 김두섭 · 박경숙 · 이세용(1999). 중년층의 세대관계

와 노후부양관.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연구보고서 99-6.

김명언(1990). 정보화사회와 기업변화. 한국사회학회 춘계 심포지움. 정보화 사회와 사회변동. 17-40.

김명언(1997). 정부정책, 가족생활 그리고 직장에서의 공정성. 석현호(편).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8장. 나남출판사.

김의철 · 박영신(1997). 스트레스 경험, 대처와 적응결과: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96-126.

김의철 · 박영신(1998). 한국인의 성공의식과 귀인양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2(2), 51-84.

김의철 · 박영신(1999). 한국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의 형성: 가정 학교 친구 사회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3(1), 99-142.

김의철 · 박영신(1999a). 서장. 김의철 · 박영신 · 양계민. 자기효능감과 인간행동: 이론적 기초와 발달적 분석. 문화심리학회총서2. 교육과학사.

김의철 · 박영신(1999b). IMF시대가 한국인의 스트레스에 미친 영향: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4(1), 57-79.

김의철 · 박영신 · 광금주(1998). 한국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스트레스 형성요인: 도시와 농촌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3(1), 79-101.

김지운(2000). 노인과 초등학생간의 세대차 인식 및 심리 행동특성의 비교 연구.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나은영 · 민경환(1998). 한국 문화의 이중성과 세대차의 근원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기존 조사자료 재해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1), 75-93.

- 나은영·차재호(1999). 1970년대와 1990년대 간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와 세대차 증감.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37-60.
- 문용린·류방란·유한구·박종효·최지영(1996). 신세대의 이해: 그들의 의식과 유형.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 민경환·김지현·황석현·장승민(1998). 성 세대 성격유형에 따른 정서 반응양식의 차이.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2(2), 119-140.
- 박광배·김미숙(1992). 한국 청소년의 집단주의적 가치체계: 가족관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2), 62-75.
- 박영신(1997). 청소년 자기효능감과 통제부위신념의 형성요인. 안귀덕·황정규·김의철·박영신. 한국청소년문화: 심리-사회적 형성요인. 41-17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박영신·김의철(1999). 실패와 미래성취에 대한 의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교육학연구, 37(3), 139-172.
- 박영신·김의철(예정). 경제불황기의 실직자와 직장인 스트레스 경험, 대처와 사회적 지원: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1).
- 박영신·김의철·김영희·민병기(1999). 초등학생의 생활만족도 형성요인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1), 57-76.
- 박영신·김의철·정갑순·권혁호·이상미·양계민(예정). 초·중·고등학생의 생활만족도 차이와 형성 및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 박임옥(2000). 중학생과 부모의 세대차 인식과 심리 행동차이에 대한 연구.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재홍(1992). 한국 사회의 세대문제: 질적 접근. 한국산업사회의 현실과 전망. 한국사회사연구회 논문집, 38, 11-66. 문학과 지성사.
- 박재홍(1995). 신세대의 일상적 의식과 하위문화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학, 29, 651-683.
- 박재홍(1999). 기성세대의 생애사와 세대차이 인식에 관한 연구: 질적 접근. 한국사회학, 33, 257-296.
- 안귀덕·황정규·김의철·박영신(1997). 한국 청소년문화: 심리-사회적 형성요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임희섭(1986). 사회변동과 가치관. 서울: 정음사.
- 정경희(2000). 고등학생과 부모간의 세대차 인식과 심리 행동특성의 차이에 관한 연구.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재호(1987). 한국 사회에서의 가치관의 변화와 적응문제. 한국심리학회 심포지움. 현대 산업사회와 인간적응. 113-130.
- 한국사회학회 편(1990). 한국 사회의 세대문제. 나남출판사.
- Bandura, A.(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Brod, C.(1988). *Technostress: Human cost of the computer revolution*. Reading, MA: Addison-Wesley.
- Elder, G. H. Jr.(1981). History and the life course. In D. Bertaux (Ed.), *Biography and society: The life history approach in the social sciences*(pp.77-115). Beverly Hills, Calif: Sage.
- Elder, G. H. Jr.(1994). Time, human agency, and social change: Perspectives on the life course.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7, 4-15.
- Hofstede, G.(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London: McGraw-Hill.
- Inglehart, R.(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

- 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ahn, H.(1979). *World economic development: 1979 and beyond.* Boulder, CO: Westview Press.
- Krueger, R. A.(1994). *Focus groups: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
- Mannheim, K.(1952). The problem of generations.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276-32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organ, D. L.(1996). Focus group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2,* 129-152.
- Tapscott, D.(1998). *Growing up digital.* New York, NY: McGraw Hill.
- Yu, A. B., & Yang, K. S.(1994). The nature of achievement motivation in collectivistic societies. In U. Kim, H. C. Triandis, C. Kagitcibasi, S. C. Choi, & G. Yoon (Ed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s,* (pp.239-250). Thousand Oaks, CA: Sage.

Intergenerational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Adolescents and Adults

Myung-Un Kim¹, Uichol Kim² and Young-Shin Park³

¹ Dep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² Dep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³ Dept. of Education Inha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generational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adolescents and adults. A total of 2,548 participants (982 adolescents and 1,566 adults) completed a survey developed by the present researchers, in addition to the self-efficacy subscales developed by Bandura(1997). The results indicat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adolescents and students in terms of attitudes, values, beliefs, and behavior. Adolescents reported generational gap with adults in social life, while adults perceived generational gap pertaining to academic achievement. In terms of values and behavior, adolescents were much more liberal, while adults were much more conservative. More specifically, adolescents valued self-development, wealth, and fame, while adults valued altruistic goals. In terms of desired occupation, adolescents preferred the entertainment business, while adults preferred professional careers. Adults scored higher on self-efficacy subscales, and both adolescents and adults perceived adults to be more self-efficacious. When dealing with intergenerational conflict, adolescents are more likely to avoid the problem, while adults attempt to actively solve the problem. In terms of musical preference, adolescents preferred Rap and Hip-Hop music, while adults preferred nostalgic Korean music. Adolescents were more likely to use computer and handphones. In addition to these generational differences, several were several similarities. Both samples valued family harmony, progressive ideals, role differentiation, and self-regulatory coping strategies. Finally, implication of these results are discussed.